

존경하는 바바 총장님을 비롯한 소카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벚꽃 만발하는 4월, '인간교육'의 이념을 공유하는 소카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여년 전 감사하게도 창립자 이케다 선생님과 대담하기 위해 소카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 새가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문학의 연못'과 '철학의 길'을 거닐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2014년 소카대학교 '창가교육 동창의 모임' 기념강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잊지 못할 추억은 제가 국립제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5월 이케다 선생님을 저희 대학에 모시고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해 드린 일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 대은인의 나라입니다."라고 하시며,  
전 지구를 감싸 안을 정도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깊은 자애에 대해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소카대학교에는 전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창립자 이케다 선생님의 깊은 자애의 마음을  
계승하려는 정신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해 가리라 기대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절망이 깊게 퍼져 있고, 경제적 비상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넘어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대학에서 배우는 철학의 영지와 최첨단 과학기술의 연구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합니다.

소카대학교는 이 점을 명확히 통찰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생,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해가기에,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소카대학교가 더욱 발전해가길, 또 한일우호의 모범으로서  
제주대와의 우호교류도 더욱 발전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제주대학교 전 총장 조문부

